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백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고립돼 있지 않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페이스북 친구 김정호 님 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폐친들의 타임라인이 시국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많은 폐친들이 몇 주째 주말을 반납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향한다. 혹시라도 촛불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꺼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나라도 가서 촛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절한 마음임을 나는 안다.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뉴스 기사를 퍼 나르고 다른 폐친의 글에 열심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 또한 혹시라도 여론의 힘이 약해질까 봐, 왜곡될까 봐 노심초사해서 그러는 것임을 나는 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없었다면 내 타임라인은 여전히 마음만은 문학소년, 소녀인 폐친들의 문학, 음악, 영화, 예술, 여행에 대한 글과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폐친들의 타임라인은 감성 대신 이성으로, 일상 대신 시국으로, 관용 대신 분노로, 무기력감 대신 싸움에의 의지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여기에 젊은 세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준 것에 대한 미안함, 청춘의 시기에 피 흘리며 싸운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 1세기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근본적 변혁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깔려있음을 나는 안다.

저들의 총반격이 개시된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결과를 낙관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냉철하게 분석한 끝에 나온 낙관이 아니다. 폐친들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함이 모여 거대한 힘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국의 오래된 격언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星星之火 可以燎原)처럼 작은 촛불이 모이면 들불이 되어 모든 낡고, 썩고, 병든 것을 활활 다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방화범이 되자.”

여러분, 우리는 고립돼 있지 않습니다. 어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누구에게나 전화 걸 기회를 제공하며 일만 청취자의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모든 청취자가 한목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들어보십시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3일(토) 1부 | 박지원 이틀 동안 비난 문자 2만 통

[오프닝] "기적 아닌 기적" 라디오 생방송 중 청취자 100% 의견 일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예상대로" 김기춘이 통합진보당 조속 해산 사실상 압박
- 박근혜 게이트 특검, 직권남용에서 뇌물죄로 죄목 바뀐 조짐
- 김무성 등 "퇴진일정만 밝히면"... 유승민 등 "야당 등의 연어야"
- 국민의당, 한마디로 썩대밭... "새누리당 2중대" 국민 분노 폭발
- 추악한 조선일보 또 "순수 시위대" 프레임 가동... 이병도 먹힐까
- [최동석 칼럼]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 DAO 철학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

DAO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김프로이드] 김프로 전 SBS기자, 팟캐스트 제작자

- 박영수-윤석열 특검 콤비 일어나... 우병우는 쉽지 않지만 박근혜는!

■ 12월 3일(토) 2부 | 조선일보, TV조선 재허가 확산하나

[출연] 민동기 미디어평론가,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어둠은 빛을 못 이긴다

한겨레 김기춘, 통합진보당 해산 압박 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서둘렀던 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담긴 내용이다. 2014년 10월4일 김기춘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보름 조금 못된 뒤인 10월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해산 심판 선고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는 대법원에 걸린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사건이 처리된 뒤에나 현재의 해산 결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됐다. 그리고 훗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없애라고 명령한 판단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없어야 할 이유가 부당한 것이다.

비겁해서 비박

朝鮮日報 김무성 등 20명 “탄핵은 무슨”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탄핵을 주장해왔던 비박계 의원들이 돌로 갈렸다. 비박은 박근혜에게 "내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퇴임 일정과 2선 후퇴를 천명하길 바란다"며 "이를 거부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수요일 저녁 6시'라는 시한을 줬다. 자, 그런데 이걸 두고 비박이 돌로 갈린다. 김무성 등 20여명은 박근혜가 내년 4월 퇴진을 공식 선언할 경우 탄핵은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등 10여명은 '박근혜가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해도 야당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되면 표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이 반대하면 탄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주의적 비박을 움직일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 시민의 저항이다. 오늘 촛불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朝鮮日報 박지원 폭탄테러 2만 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와 그제 이들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만 2만여 통을 받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안 표결을 주장하자 "탄핵을 가결시키려면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해야 한다"며 표결을 다음 금요일로 연기하자고 했다가 '문자 테러'를 당한 것이다. 국민의당도 쑥대밭이 됐다. 서울 마포 중앙당은 물론 소속 의원 38명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항의가 폭주했다. 팩스와 이메일로도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중앙당에 '새누리당 2중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결국 국민의당은 백기를 들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본청 앞에서 새누리당의 탄핵 참여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가졌다.

특검 심상치 않다

경향신문 “박근혜 직권남용에서 뇌물죄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 결과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와 최순실 등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그리고 모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특검팀이 보다 무거운 범죄인 뇌물죄로 수사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검찰이 왜 고작 직권남용 혐의로 싸게 끊어줬을까 법리적 논란이 있었다. 기업들이 민원해결이나 사업 특혜 등을 노리고는 청와대 수석 말 듣고 준 것이라고 본다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죄가 적용된다. 단적으로 박근혜는 삼성에게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이라는 큰 선물을 준 일이 있었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지만,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이 오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처벌이 현격히 무겁다.

중앙일보 차은택 구치소서 영어책 본다

차은택은 최근 교도소에 반입한 도서 20권 중에 『영문독해 테크닉105』 『기초 영어 말하기훈련』 등 직원과 부인이 넣어준 책을 받았다고 한다. 구치소에서 영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순실은 겨울 내의 등 의류 7종 16만8600원어치를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으로 샀다. 삼푸 등 생활용품 32종 14만원어치도 구매했다고 한다.

거의 다됐다
오늘 끝내자

의치도 무너진다

중일일보 중국 압박 갈수록 고강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한류 프로그램 통제와 중국인 단체 관광 제한에 이어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 그룹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외교 당국과 중국 진출 업계에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밖에도 한국산 식품·화장품에 대한 위생 검역이 강화되면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 이미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문화·경제 협력 행사가 들연 중단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조선일보가 움직인다

朝鮮日報가 ‘이재명 바람’을 조망하네

조선일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바람을 최초로 다뤘다. 각종 대선 주자 조사에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며 말이다. 이재명 시장이 한 말 중에 이걸 인용했는데 “부당한 기득권자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보수하고 그런 사회악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진짜 보수라면 나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부패 구악들이 보면 내가 진보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패 구악일까 진짜 보수일까.

한국일보 입 닥치라 ‘순수’ 좋아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희정 디지털부문장의 칼럼 “이제 그만 촛불을 끄라고요?” 소개한다.

“반격은 이미 시작됐다. 제 언어조차 갖지 못할 만큼 아둔해도 정치적 섹법에는 밝은 그분의 ‘꿈수 담화’가 신표이다. 향간의 설처럼, 요지부동이던 친박들이 용퇴를 건의한다고 나섰을 때 이미 치밀한 작전이 세워져 있었을지 모른다. 비선의 존재조차 몰랐다면 애써 선을 긋던 비박들도 얼른 자세를 바꿨다. 언필칭 ‘질서 있는 퇴진’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의 꿈만 오롯하다. 이 혼돈을 틈 타 ‘순수의 망령’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2일자 사설에서 촛불 민심을 “시위세력”으로 폄훼하고, 대통령이 여당 뜻대로 ‘4월 퇴진’을 밝힌 뒤에도 시위가 계속된다면 “순수한 시민들의 평화적 항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문열의 기고는 더 노골적이다. 그는 전언을 빌려 “촛불 시위의 정연한 질서”를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서와 같은 거대한 집단체조의 분위기”)로 몰고, ‘보수’를 향해 “다시 너희 시대를 만들기를” 주문했다. (TV조선의) 몇 건의 폭로 기사와 매서운 꾸짖음이 결국 효용 다한 허수아비(박근혜)를 쳐내고 수구 재집권을 피하려는 것이었음을 무릅없이 드러낸 것이다.

오만이 도를 넘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심판을 끌어낸 건 그들이 아니다. 무력하던 언론들이 취재 경쟁에 나서고, 눈치만 보던 검찰이 칼을 빼 들게 한 것도 국민의 명령이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규명 등 더 큰 난제들을 떠안은 특검이 겨우 첫 발을 뗐다. 새누리당과 재벌, 검찰, 국정원, 수구언론 등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공범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합당한 단죄를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됐으니 광장을 떠나라고? 명심하자. 어둠은 제 발로 몰려가지 않는다. 다시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촛불을 밝혀야 한다.”